

중국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 다음성 효과 재현을 중심으로

최적(한국의국어대학교)

1. 서론

본고는 老舍의 장편소설 『駱駝祥子』에 나타난 중요한 서사학적 특징인 자유간접화법이 한국어로 어떻게 재현되는지, 자유간접화법의 다음성 문체 효과가 번역문에 적절하게 실현되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화법은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물 형상화, 극적 효과, 소설 리듬 구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떤 화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이야기도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 이하 FID)¹⁾은 특히 문학 작품에서 그 문체적 효과를 발휘하는 서사 기법이다. 인용표지 없이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한 구문 혹은 한 발화 안에 혼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음성, 즉 다음성이라는 문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소설 번역에 있어서 원문 저자가 전달하려는 ‘내용’뿐만 아니라 원문의 문학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면, 그 미학적 ‘형식’ 즉 문체의 번역 문제도

1) 논자에 따라 ‘자유간접발화(free indirect speech)’ 또는 ‘자유간접문체(free indirect style)’라고도 한다. ‘의사직접화법(quasi-direct discourse)’ 또는 ‘치환서술(substitutory narration)’이라고도 한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p. 729).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작품 문체적 요소 중 하나인 FID를 유지하여 원문의 다음성 효과를 번역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해석과 선택에 따라 FID의 재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FID는 19세기 중엽 Flaubert의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대 소설 특유의 문체로, 로망스어군과 게르만어군, 슬라브어군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헝가리어, 핀란드어, 터키어, 힌두어, 요르바어 등 다양한 언어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언어형식이다 (Fludernik, 1993, p. 99, 박선희, 2015, p. 39에서 인용). 그러므로 FID는 중국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작품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중-한, 한-중 번역에서 문학 번역가들이 작업에서 항상 직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한 문학 텍스트에서 자주 발견되는 FID가 중국어에서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될 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나 한국에서 FID 구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등의 언어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중한 번역에서의 FID 구문 연구는 아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자유간접화법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 장편소설 『駱駝祥子』와 2008년에 출판된 해당 소설의 한역본 『낙타상즈』(심규호와 유소영 옮김, 2008)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중국어 FID 구문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FID의 다음성 문체 효과가 번역문에서 적절하게 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유간접화법과 번역

2.1 자유간접화법의 형태적 특징과 문체 효과

이 부분에서는 먼저 소설에서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 즉 화법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보고, 다른 화법과의 비교를 통해 FID의 형태적 특징과 문체적 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Leech와 Short(2007, pp. 270-271)의 화법 이론에 따르면, 서술자의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화법은 보통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1) 자유직접화법 (Free Direct Discourse: FDD).

Does she still love me?

그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할까?

(2) 직접화법 (Direct Discourse: DD).

He wondered, "Does she still love me?"

그는 “그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할까?” 라고 궁금해 했다.

(3) 자유간접화법 (Free Indirect Discourse: FID).

Did she still love him?

그녀가 아직도 그를 사랑했을까?

(4) 간접화법(Indirect Discourse: ID).

He wondered if she still loved him.

그는 그녀가 아직도 그를 사랑할지 궁금했다.

(5) 화행의 서사적 보고(Narrative Report of a Speech/Thought Act: NRSA/ NRTA).

He wondered about her love for him.

그는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의심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의 FID의 예문에서 두드러진 점은 (2)의 직접화법(DD)과 (4)의 간접화법(ID)에서 볼 수 있는 ‘He wondered’와 같은 전달절(reporting clause)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의 DD에서 볼 수 있는 인용부호(“”)도 없다는 것이다. DD와 ID는 인용부호 혹은 전달절이 명시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서술자와 피전달절(reported clause)의 발화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반면에, (3)의 FID에서는 전달절이 없어지고 피전달절과 같은 형식으로 구사되므로 서술자와 피전달절의 발화자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FID 구문의 번역은 번역자들에게 난제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가 해당 구문의 실제 발화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의 FDD와 비교하여 (3)의 FID는 인칭 대명사와 시제가 피전

달절 발화자의 시점을 보여주는 1인칭(me)과 현재 시제에서 서술자의 음성을 담고 있는 3인칭 대명사(him)와 과거 시제로 바뀌게 된다. 이와 동시에 직접화법의 의문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피전달절 발화자의 존재도 알리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FID는 서술자의 간접성과 피전달절 발화자의 직접성이 한 문장 안에 혼합되어 나타나는 다음성(polyphony)적 특징을 갖는 문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성이란 한 구문 혹은 한 발화에 여러 명의 주체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한 논의는 Bakhtin으로부터 비롯된다. 다음성은 Bakhtin의 대화주의(dialogoism) 이론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개념 중의 하나로, 모든 담화에는 항상 타자의 담화가 개입됨으로써 여러 주체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타난다는 것(김종로, 1998, p. 429)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ID 구문에서는 명확한 인용표지가 없음으로 하나의 발화에 서술자와 피전달절 발화자의 존재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다음성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누가 말이나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에게 모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상상이나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FID의 형태적 특징과 다음성 문체 효과는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성(박선희, 2011a, p. 58)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중국어의 자유간접화법 중, 서술자의 목소리가 덜 표시되는 ‘양가형(兩可型)’²⁾이라는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어에는 시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 간 구별은 전적으로

2) 申丹(1991)에 의하면, 중국어는 다른 언어에 나타날 수 없는 자유직접으로도 자유간접으로도 해석 가능한 “양가형”이 존재한다. 많은 서양 언어에서는 다른 표시가 없이 시제만으로 직접과 간접을 구별할 수 있지만, 중국어는 다른 표시 없이 시제 변화도 없기 때문에 해당 구문이 자유직접인지 자유간접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p. 77). 예를 들면, a林先生心里一跳, 暂时回答不出来。b虽然是七八年的老伙计, 一向没有出过岔子, 但谁能保到底呢!(a 린 씨는 가슴이 벌렁거렸고 잠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b 7~8년 된 짝이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지만 누가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 예문 뒷부분 b 문장은 바로 FID 또는 FDD로 해석될 수 있는 전형적인 양가형 구문이다. 해당 문장에서 인칭이나 시제 변화가 명확하지 않아서 FID인지 FDD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상하 맥락에 의해서만 저자가 어떤 화법을 사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인칭에 달려 있는데, 발화 주체가 잘 표현되지 않고 인칭 대명사와 소유 대명사도 잘 사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견된다. 이 때문에, ‘양가형’ 구문은 FID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FDD에 해당할 수도 있다. Hagenaar(1996)에서도 중국어의 자유간접화법 문장은 대부분 문맥에 의해서만 판별될 수 있다는 특징을 언급하였다(pp. 295-296). 즉, 중국어에는 FID를 판단할 수 있는 언어적 표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보다 문맥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2.2 자유간접화법 번역에 관한 연구

현재 중국에서 FID의 번역 연구는 주로 영어, 프랑스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 자유간접화법의 중국어 번역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楊斌(2005)은 『허영의 시장』, 『오만과 편견』의 원문과 중국어 번역문을 비교한 결과, 번역자가 FID를 단순한 서술로 번역하면 원문의 맛을 잃는다는 점을 발견하고, 실제 번역에서 번역가들이 가능한 한 FID 구문의 문체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王林(2014)은 Virginia Woolf의 『댈러웨이 부인』, 『등대로』와 해당 작품들의 여러 중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영어 FID 구문의 중국어 번역에 있어서 문장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원문의 독특한 문체 효과를 적절하게 재현하려면 FID 구문의 문장 구조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駱駝祥子』에 나타난 FID에 대한 번역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주로 중영 번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가령, 孫會軍과 於海闊(2013)는 『駱駝祥子』에서 FID 구문이 많이 사용된 이유를 소설 주제와 인물 성격에 비추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작품의 영어 번역본 4편에서 FID 구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번역가의 문체 의식이 문학 번역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작의 문학성을 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는 자유간접화법의 문체 효과 논의에 있어서 다음성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언급하지 않고, 아이러니 효과에만 집중하여 분석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黃立波(2014)는 이중 언어 병렬 코퍼스를 활용하여 『駱駝祥子』에 나타난 ‘양가형’ 화법을 처리하는 방법을 분석하였고, 영어 모국어 번역자는 자유직

접화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중국인 번역자는 자유간접화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화법 변화 현상 기술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론적 지침에 따른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潘冬(2020)은 번역행위 비평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어 자유간접화법을 영어로 번역할 때 번역자의 행위 패턴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도 번역 내적 요인과 번역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가 있다.

한국에서 FID 번역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연구 대상 언어도 주로 프랑스어, 영어로 국한되어 왔다. 박선희(2008, 2011a, 2011b, 2015 등)는 일련의 연구에서 프랑스어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을 고찰하였고, 이를 문법, 문체, 활자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한국어 FID 구문의 내부 지표³⁾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중국에서의 관련 연구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 이외에 정하연(2015), 서영환(2018)은 영어 문학작품에 나타난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자에서는 연구자가 규정하는 자유간접화법의 형식이 명확하지 않고, 후자는 자유간접화법과 자유직접화법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견된다.

중국어 FID의 한국어 대응 양상과 관련된 연구는 1편 밖에 없다. 單清叢(2022)은 余華의 소설 『許三觀賣血記』에 나타난 FID를 전형적, 비교적 전형적, 비(非)전형적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시켜 각각의 한국어 대응 양상을 살펴본 후 중한 자유간접화법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각 유형의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예문들 중 일부가 FID 구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한다.

3) FID 관련 용어들 중에서 지표(indices)와 표지(signes)의 차이는 박선희(2011a, p. 58)를 참고할 수 있다. 표지는 다른 대상과 구별하여 어떤 대상을 확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다고(라고)’, ‘-다는(라는)’ 등은 화자가 다른 발화자의 담화를 전달한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인용의 ‘표지’이지만, FID의 ‘지표’들은 FID 구문에서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서술이나 다른 화법에서도 동일한 언어적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도 이와 같이 FID 구문을 인식하게 해주는 언어적 특징들을 FID의 ‘표지’가 아니라 ‘지표’라고 하기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 FID 구문의 한국어 번역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單清叢(2022)은 연구대상을 중국 소설과 그 한국어 번역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당 연구는 대조언어학적 분석이지 번역학적 연구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장편소설 『駱駝祥子』의 특징적 문체인 자유간접화법이 2008년에 나온 한역본 『낙타상즈』에서 어떤 형태로 재현되는지, 정량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해 맥락상 그 다음성 효과가 원문과 동일하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중국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양상

3.1. 『駱駝祥子』에 구사된 자유간접화법

FID는 19세기 이후 서양 소설에서 많이 사용된 서사 기교로 Flaubert, Austen, Dickens 등의 작품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이 화법은 5.4 신문화운동⁴⁾ 이후 중국에 도입되어 중국의 소설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국의 작가 중 한 명이 라오서인데, 그의 장편소설 『駱駝祥子』는 바로 이 기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킨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1920년대 베이징 인력거꾼 상즈의 비참한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상즈는 시골에서 베이핑(北平, 베이징의 구칭)으로 와서 인력거를 끌고 살아가는 내성적인 젊은이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지위가 낮으며, 베이징 사투리를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사투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

4) 5.4 신문화운동은 胡適, 陳獨秀, 魯迅, 錢玄同 등 서구 교육을 받은(당시 신교육으로 알려짐) 사람들이 “반전통(反傳統), 반유교(反儒教), 반문어(反文言)”를 내세우며 시작한 사상적, 문화적 혁신이자 문학 혁명이다. 5.4 신문화 운동 이후, 서양의 문학 사상이 중국에 도입되어 새로운 문학 개념, 장르 및 표현 기법을 가져와 형식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중국 문학의 출현과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운 인물이다.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말재주가 없어서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별로 없다. 설령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매우 짧은 단문이나 불완전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말이 적다고 해서 마음도 침묵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에서 묘사된 것처럼, “因為嘴常閑著,所以他有工夫去思想,他的眼仿佛是老看著自己的心。(老舍, 1962, p. 6) (입을 늘상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그의 눈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말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소설에서 상즈의 활발한 내면 의식 활동은 FID를 통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FID는 인용표지 없이 인물의 내면세계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설의 서사가 “외부적 상황에서 내면의 인식, 혹은 등장인물들 간의 심리적 상호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전환(Fludemik, 1993, p. 73)”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한편, 申丹(1991)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어에는 FID로도 FDD로도 해석 가능한 ‘양가형’이 존재한다. 『駱駝祥子』에서도 이러한 구문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FID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FID는 서술자가 주인공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에서 주로 쓰인다(한미애, 2011, p. 270, 노은주, 2021, p. 83). 전지적 작가 시점의 객관성과 인물 시점의 주관성을 유기적으로 섞어 작품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駱駝祥子』는 바로 이러한 시점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양가형 구문들을 FID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FID에는 다음성이라는 기본적인 특징 외에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인물에 대한 동정적인 공감 혹은 거리감 두기이다(서영환, 2018, p. 222). 다시 말해서, 명확한 인용표지 없이도 서술자가 인물의 말이나 생각에 은밀하게 개입하여 인물과 독자 간의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Leech and Short, 2007 pp. 261-262).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골적으로 묘사한 FDD를 통해서 재현하기 어렵다.

셋째, 작중인물의 성격, 이미지 등 요소는 양가형 구문을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선 인물의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주인공 상즈는 내성적이고 지적 수준이 높지 않는 인물이므로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FID를 통해 서술자의 입으로 그의 내면세계를 더욱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駱駝祥子』에 나타난 양가형 구문을 FID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3.2.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양상

본고에서는 총 220개 구문의 원문과 해당 번역문 비교 코퍼스⁵⁾를 구축하였다. 원문 데이터의 정리에 있어서 중국어 FID 구문의 문맥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과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문장들을 한 예문으로 추출하였다⁶⁾. 이로 구성된 코퍼스를 대상으로 원문에 나타난 FID 구문을 인칭 유무에 따라 전형적인 FID와 ‘양가형’으로 나누어 한국어 번역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화법⁷⁾으로 재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FID 구문의 효과 유지, 혹은 약화나 손실의 판단은 원문의 모호성과 구어체적 특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인칭 대명사, 인물의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번역문 내 구두점 등 여러 지표들의 적극적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에서 다음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박선희,

5) 본고에서 사용하는 ‘코퍼스’는 ‘데이터 모음’이라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코퍼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6) 앞뒤 문맥에서 나오는 FID 구문들의 시작과 종결 지표를 고려하면, 한 장면에서 나오는 인물의 생각이 한 덩어리로 보아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원문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속되는 여러 문장 중에 자유간접화법을 재현한 부분과 단순한 서술문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간접화법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고 해당 부분만의 번역문을 고찰하였다.

7) 분석 대상 데이터를 정리할 때, 먼저 인칭 유무에 따라 원문을 전형적인 FID와 ‘양가형’으로 나누어 표시하였고 이후 번역문의 분석 범주를 혼합형, DD(직접화법), FDD(자유직접화법), ID(간접화법), FID(자유간접화법), N(화행의 서사적 보고), X(생략)로 정하여 해당 한국어 번역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혼합형은 원문의 FID 문단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화법 유형으로 번역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16, p. 33), 본고의 연구대상인 『駱駝祥子』의 한역본은 2008년에 출판되었기에, 번역자들은 자유간접화법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고 번역문에서도 이 화법의 다음성 문체 효과를 대부분 유지할 것으로 예상⁸⁾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어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양상

ST	분석 범주	TT	다음성 효과 재현
전형적인 FID (111)	FID→FID	52	유지 46.8%
	FID→혼합형	39	약화 35.1%
	FID→FDD	20	손실 18.1%
양가형 (109)	FID→FID	48	유지 44.0%
	FID→혼합형	27	약화 24.8%
	FID→FDD	32	손실 31.2%
	FID→DD	1	
	FID→X	1	

<표 1>을 보면, 원문 텍스트에서 전형적인 FID가 111개, 양가형 구문은 109개가 추출되었고, 한국어 번역문에는 이러한 서술 방식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FID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주로 FID, 혼합형, FDD로 재현되었고, 양가형은 이 세 가지 유형 뿐 아니라 DD로 전환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전형적인 FID 구문이든 양가형 구문이든 한국어 번역문에서 FID로 유지되는 것은 모두 50% 미만이다.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합해서 총 220개의 분석 데이터 중 원

8) 물론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다음성 연구 결과가 중국 문학 번역에 적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자가 자유간접화법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문맥을 통해 해당 구문들이 단순한 서술문이 아니라,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모두 담겨 있는 구문들임을 인식하고 번역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라오서의 작품에서 등장된 자유간접화법이 인물이 사용하는 방언 어휘, 구어 표현, 지시소 등 직접화법의 언어적 지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간접문체 구문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문의 서술방식이 번역문 텍스트에서 보존된 경우는 100개로 약 45.5%이고, 다른 화법으로 변환시킨 경우는 120개로 약 54.5%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번역자는 원문의 서술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화법으로 변형시키는 경향이 더욱 강했고, 그만큼 원문의 다음성 문체 효과가 번역문에서 약화되거나 완전히 손실돼 버린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화법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형적인 FID 구문에서 혼합형으로 바뀌어 번역하는 것은 39개(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양가형 구문에서는 FDD로 번역되는 경우가 32개(2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양가형 구문에서 서술자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명확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해당 구문들을 FID로 간과하기보다 FDD로 해석하기 쉽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에서 원문의 FID 구문을 보존하여 다음성 효과를 유지하는 경우,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변환하여 원문과 다른 문체적 효과를 전달한 경우를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 중국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실례 분석

본고에서는 박선희(2018)에 제시된 FID 지표들을 기준으로 번역문에 다음성 효과가 적절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박선희(2018)에서는 항목별로 한국어 FID 구문에서 다음성을 만드는 내부 지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서술자 음성 지표와 등장인물 음성 지표로 분류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음성 지표들(박선희, 2018, p. 112)

3인칭 시점 소설의 경우	서술자 음성 지표	등장인물 음성 지표
문법(통사) 지표	3인칭 대명사: ‘그’, ‘그녀’, ‘자기’, ‘자신’ 등 인물 시점보다 한 시제 과거동사 시제 (인용표지 없는) 문어체 종결어미	생략된 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 ‘나’, ‘우리’ 등 인물 시점과 일치하는 동사 시제: 미래, 현재 시제 등 지시소: 이것, 지금, 여기 등
문체 지표	-	구어(어휘, 표현, 축약 어미 사용), 방언, 은어, 반복, 주저함, 양태, 미종결문, 단문, 경어법
활자 지표	-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쉼표, 이탤릭체, 대문자, 굵은 글씨

중국어 FID 지표와, 위 <표 2>에 제시된 한국어 FID의 지표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범주는 문법(통사) 지표 부분이다. 중국어는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 변화와 종결어미가 없기 때문에 FID 구문에서 서술자 음성이 드러나는 지표는 3인칭 대명사밖에 없고, 3인칭 대명사가 생략된 경우는 텍스트 상하 맥락을 통해 스스로 추론해야 한다.

그리고 申丹(2019)에 의하면, 중국어 FID 구문은 주로 직접화법에서 나타난 의문문이나 감탄문, 불완전한 문장, 구어나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표현, 원래 발화의 시간 및 장소 등과 같은 인물의 주체 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다(p. 281). 따라서 위 <표 2>에 제시된 문체 지표나 활자 지표들에 있어서 경어법⁹⁾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중국어 FID의 다음성 문체 효과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적절히 재현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9) 경어법이 많이 발달되지 않는 중국어의 특성상 본고에서는 경어법을 지표에서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다.

4.1. 다음성 효과의 유지

먼저 원문의 전형적인 FID가 그대로 한국어 FID 구문으로 번역되어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한 구문 안에 동시에 들리는 사례를 살펴보자. <예문 1>은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인력거를 잃은 후, 상즈의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생생하게 묘사한 장면이다.

<예문 1>

ST: 吃苦, 他不怕; 可是再弄上一辆车不是随便一说就行的事; 至少还得几年的工夫! 过去的成功全算白饶, 他得重打鼓另开张打头儿来! 祥子落了泪! 他不但恨那些兵, 而且恨世上的一切了。凭什么把人欺侮到这个地步呢? 凭什么?“凭什么?”他喊了出来。(Chap.2, p. 16)

TT: 고생쯤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인력거를 다시 마련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또다시 여러 해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성공이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상즈는 눈물을 툭툭 흘렸다. 그는 병사들을 원망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저주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우롱하여 이런 지경으로 만든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는 절규했다. (p. 30)

ST에서 밑줄로 제시된 구문들은 서술자 시점인 주어 3인칭 대명사 ‘他(그)’와 주인공 상즈의 음성을 나타내는 방언 어휘 ‘白饶(헛되다)’, 지시소 ‘这个(이런)’, 느낌표, 물음표 등을 한 발화에서 사용하기에 서술자와 상즈의 생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FID 구문으로 판단된다.

TT도 원문과 같이 FID를 사용하여 다음성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지표들의 사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보인다. 원문과 비교했을 때, 3인칭 대명사 이외에, 서술형 ‘-다’와 의문형 ‘-는가’ 등 문어체 종결어미, 그리고 ‘-았-’, ‘-었-’ 등의 과거 시제도 독자에게 서술자의 존재를 알린다. 해당 구문의 구어성을 강화하고 상즈의 음성을 보여준 지표로, 관용구 ‘도로아미타불¹⁰⁾’, 지시소 ‘이런’, 느낌표, 물음표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과 같은 축약조사도 볼 수 있다.

또한 인칭 대명사, 느낌표 등 지표들의 사용 빈도에 있어서 원문과 번역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원문에는 ‘他(그)’라는 3인칭 대명사가 세 번이나 등장하지만 번역문에는 하나만 남아 있다. 이는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면 대명사를 생략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한국어의 특성(박선희, 2018, p. 99)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원문 FID 구문들에는 상즈의 분노와 절망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2개의 느낌표가 연이어 등장하지만, 한국어 번역문에는 1개만 남아 있다. 한국어에서는 문어체에서 느낌표 사용이 지양되는 편이고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느낌표 대신 온점을 쓸 수도 있다(한원형, 2011, p. 316). 또, ‘고생쯤은 두렵지 않았다. 또다시 여러 해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문장들이 그 자체로 강조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물의 감정이 충분히 전달된다고 판단하여 느낌표를 마침표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양가형 구문이 FID로 번역되어 다음성을 유지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예문 2>는 주인공 상즈가 후니우와의 대화에서 그녀의 배려를 느껴 자신의 억울함과 우울함을 그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묘사한 것이다.

<예문 2>

ST: 既然不肯得罪她, **再一想**, 就爽性和她诉委屈吧。自己素来不大爱说话, 可是今天似乎有千言万语在心中憋闷着, 非说说不痛快。**这么一想**, 他觉得虎姑娘不是戏弄他, 而是坦白的爱护他。(Chap.6, p. 49)

TT: 그럴 바에야 그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웬지 술한 말들이 가슴 답답할 정도로 가득 차 있어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다 보니, 후니우도 그를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아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p. 89)

ST에서 밑줄 친 부분은 선행사의 인칭에 대한 제약이 없는 중국어 재귀 대명사 ‘自己(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가형으로 판단된 구문이다. 이 문

10) 원문의 방언 어휘 ‘白饑(헛되다)’는 한국어 관용구 ‘도로아미타불’로 번역되었다.

장은 얼핏 보면 단순한 서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당 구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맥락 상 상즈의 생각이 재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뒤 맥락에 나온 ‘再一想(다시 생각해 보니)’, ‘这么一想(그렇게 생각하니)’이라는 글자로 인해서 상즈의 생각이 시작되고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뒤에 3인칭 ‘他(그)’가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치한 문장이 FID로 상즈의 생각이 재현된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구문의 TT도 똑같이 FID로 처리되었다. TT를 보면, ST의 ‘再一想(다시 생각해 보니)’, ‘这么一想(그렇게 생각하니)’를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로 번역하여 주인공 생각의 시작과 종결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문장 안에 대명사를 생략하지만 ‘지경이었다’는 과거 시제를 통해서 서술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지시소 ‘오늘’, 축약형 ‘웬지’는 인물의 음성을 담고 있다. 즉 해당 번역문에서도 서술자의 존재를 제시하면서도 중간에 인물의 음성을 알리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원문 텍스트의 다음성 문체 효과가 번역문에서도 확인되었다.

<예문 1>과 <예문 2>은 원문의 다음성을 보존하여 중국어의 FID를 한국어 FID로 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번역문 중 상당 부분은 기타 형식으로 번역됨에 따라 다른 문체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번역에 가져오는 문체 효과의 차이는 이하 다음성 효과의 약화 및 손실 부분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4.2. 다음성 효과의 약화

이 부분에서는 원문의 FID 구문을 FID와 FDD가 결합하는 혼합형으로 번역하여 다음성 효과가 약화되는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두 서술 방식의 문체 효과 차이를 살펴보자. FID와 FDD는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라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유표적인 서술 방식으로, 문맥에 특별한 문체적 효과를 부여한다(한미애, 2013, p. 124). 다음성을 연출할 수 있는 FID와 달리, FDD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말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독자는 등장인물이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낀다. 또한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해석할 필요 없이 발화 주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문 3>

ST: ①她只须伸出个小指, 就能把他支使的头晕眼花, 不认识了东西南北。②他晓得她的厉害! ③要成家, 根本不能要她, 没有别的可说的! ④要了她, 便没了他, 而他又不是看不起自己的人! ⑤没办法! (Chap.10, p. 83)

TT: ① 그녀가 그저 새끼손가락 하나만 내밀어도 그는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현기증 나게 휘둘릴 게 분명하다.#FID ② 알잖아? 그녀가 얼마나 독한지!#FDD ③-1 가정을 꾸미자면 처음부터 그 따위 여자를 얻어서는 안 된다.#FID ③-2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FDD ④ 그녀를 얻는 즉시 그의 존재는 보잘것없어질 텐데, 그는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잖은가!#FID ⑤ 아, 정말 방법이 마땅치 않구나!#FDD (p. 150)

위 예문은 후니우가 결혼을 강요한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상즈의 복잡한 심리활동을 FID로 생생하게 묘사한 장면이다. ST에서 서술자는 3인칭 대명사 ‘他(그)’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알리고 있으며, 방언 어휘 ‘支使(시키다)’, 주관성을 담고 있는 양태소 ‘根本不能(근본적으로 안 되다)’, 느낌표 등은 인물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해당 원문은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FID 구문인 것을 확인될 수 있다.

TT는 FID와 FDD가 혼합되어 번역되었다. ①, ③-1, ④에서는 3인칭 대명사, 문어체 종결어미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서술자와 인물의 존재를 동시에 나타난 FID 구문으로 번역되어 독자가 실제로 누가 이 말을 했는지를 해석해야 한다. 이때 ②, ③-2, ⑤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알잖아’, ‘독한지’, ‘없어’, ‘마땅치 않구나’ 등과 같은 구어체 종결어미들을 사용한 FDD로 해당 구문이 인물의 음성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구문들을 통해서 독자는 해당 부분의 발화 주체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해석할 때 들이는 노력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문단 전체를 봤을 때, 원문의 맥락에 부여된 다음성 효과는 약화된다. 즉 원문에서 3인칭 “他(그)”를 통해 나타났던 서술자가 번역문에서는 부분적으로 사라지면서 다음성 효과가 약화된 것이다.

양가형의 번역문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예문 4>는

샹즈가 인력거를 끌다가 차오 선생을 다치게 된 후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까오마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꿔 인력거를 살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묘사한 장면이다.

<예문 4>

ST: 颠算了七开八得, 他觉得高妈的话有理。①什么也是假的, 只有钱是真的。②省钱买车; 挂火当不了吃饭! 想到这, 来了一点平安的睡意。(Chap.7, p. 64)

TT: 몇 번이고 되새겨보아도 까오마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①모든 게 다 가짜라고 해도 돈만은 진짜다. #FID ②-1돈을 아껴 인력거를 사야지. #FDD ②-2괜히 성질만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다. #FID 이런 생각이 들자 다소 편안한 잠이 찾아들었다. (p. 116)

<예문 4> ST에서 밑줄 친 두 문장이 명확한 인칭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통해서 FID 구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앞에 문장에서 나오는 3인칭 대명사 ‘他(그)’와 뒤에 등장하는 ‘想到这(이걸 생각하자)’를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문장들이 서술자의 입으로 샹즈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FID 구문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앞에 나온 ‘他(그)’는 서술자의 음성이 담겨 있는 반면에, 주관적 어휘 ‘只有(오로지)’, 방언 어휘 ‘挂火(화내다)’, 느낌표 등에는 샹즈의 음성이 담겨 있어 하나의 발화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기 때문이다.

TT와 ST 간의 가장 큰 차이는 TT에서 ST의 ②를 두 문장으로 바꾸고, 또 ②의 앞부분을 ‘-야지’라는 구어체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발화 주체가 명확한 FDD로 번역한다는 것이다. ST의 ②에서 병렬관계를 나타낸 쌍반점 ‘;’이 등장하기 때문에 번역자는 이를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¹¹⁾. ①, ②-2에서는 현재 시제를 통해서 인물의 음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라는 문어체 종결어미로 독자에게 서술자의 존재를 알린다. 반면에 ②-1에서는 서술자의 음성이 사라지고 인물의 음성만 남아 있다. 해당 문단 전체를 봤을 때, 서술자의 음성 비율이 떨어져 인물의 음성 비율이

11) 한국어에서는 ‘쌍반점’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문장부호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원문의 다음성 효과가 약화되어 해당 문장들이 상즈의 ‘생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해야 할 점은, <예문 3>, <예문 4>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예문 1>, <예문 2>와 달리 현재 시제로 기술되는 FID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어와 달리 동사 시제는 한국어 FID 구문의 판단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 시점인 현재 시제로 기술되기도 하고, 서술자 시점인 과거 시제로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혼합되는 FID에서 번역자가 서술자의 음성을 강화하려면 과거 시제로 번역하고, 인물의 음성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려면 현재 시제를 선택할 수 있다(박선희, 2018, p. 100). 본고의 데이터 전체를 살펴본 결과, 서술자 시점인 과거 시제는 220개 중 86개(39%) 예문에서만 나타난다. 그 중 73개에서 과거 시제는 일부 문장에만 등장했으며 예문의 모든 문장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13개, 5.9%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서도 FID 구문을 번역할 때 서술자의 음성보다 인물의 음성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번역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4.3. 다음성 효과의 손실

본고에서 다음성 효과가 손실되는 것은 원문의 FID를 완전히 FDD나 DD 등 다른 화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생략하는 경우를 말한다. 먼저 FDD로 전환된 예시를 살펴보자.

<예문 5>

ST: 他根本不想上曹宅去了。一上曹宅, 他就得要强, 要强有什么用呢? 就这么大咧咧的瞎混吧: 没饭吃呢, 就把车拉出去; 够吃一天的呢, 就歇一天, 明天再说明天的。这不但是个办法, 而且是唯一的办法。攒钱, 买车, 都给别人预备着来抢, 何苦呢? 何不得乐且乐呢? (Chap.23, p. 208)

TT: 차오 선생 집으로 가지 않을 거야. 그 집에 가면 부지런하고 강해져야 하는데 그러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대충 지내면 되지. 돈이 없으면 인력거를 끌고, 하루 먹고 살 만하면 그냥 하루 쉬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는 거야. 이게 바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지. 돈 벌고 인력거 사는 것, 모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이야. 그럴 필요 있어? 그냥 그날그날 되는대로 흥겹게 사는 게 어때
서? #FDD (p. 350)

<예문 5>는 주인공 상즈가 사랑하는 여자 샤오푸즈가 목을 매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기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고 열심히 생활하고자 하는 신념까지 없어진 마음을 FID로 기술하고 있는 문단이다. 서술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3인칭 대명사 ‘他(그)’와 인물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어기 조사 ‘呢(의문이나 강조하는 어기를 나타낸 조사)’, ‘吧(권유, 제안, 청유,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 어기 조사)’, 그리고 의문을 표기하는 물음표들이 해당 문단이 FID 구문들이라는 판단을 도와주는 지표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ST의 다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TT를 보면, 3인칭 대명사를 모두 생략하였고 또 구어체 종결어미로 번역한 것을 보아 FDD 구문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ST의 FID 구문을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재현하였다. 결과적으로 발화 주체가 명확한 FDD는 다음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FID에 비해 목소리의 소유자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는 해당 구문을 통해 누구의 감정인지를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효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번역문은 원문 저자가 표현하려는 다음성 효과가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다음성 효과를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살리려면 <예문 5>의 FID 구문들은 아래와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예문 5의 제안 번역>: 차오 선생 집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집에 가면 부지런하고 강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대충 지내면 된다. 돈이 없으면 인력거를 끌고, 하루 먹고 살 만하면 그냥 하루 쉬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는 거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돈 벌고 인력거 사는 것, 모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그럴 필요 있는가? 그냥 그날그날 되는대로 흥겹게 사는 게도 좋지 않는가?

위와 같이 제안된 번역문은 원래 TT의 각 문장 끝에 사용된 구어체 종결어미를 문어체 종결어미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서 서술자의 음성을 들리

도록 하였고, 그 이외에 현재 시제 또는 ‘이렇게’, ‘이게’, 물음표 등은 인물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이처럼 한 발화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혼합되어 원문의 다음성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양가형 구문에서도 번역자가 서술자의 음성 없이 인물의 음성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문 6>

ST: 左右看, 没人, **他的**心跳起来, 试试看吧, 反正也无家可归, 被人逮住就逮住吧。(Chap.12, p. 101)

TT: 아무도 없다. 그의 가슴이 벌렁거렸다. 어차피 갈 곳도 없고, 한 번 들어가보자. #FDD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지. #FDD (p. 180)

<예문 6>은 주인공 상즈가 쏜 형사에게 협박을 받고 다시 차오 선생 집으로 돌아가 문 밖에서 서성거릴 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ST를 보면,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여 서술문과 같은 형식으로 취하고 있지만, 앞에 나오는 소유 대명사 ‘他的(그의)’, 그리고 문장 안에 나오는 어기 조사 ‘吧’를 통해서 밑줄로 친 부분이 FID 구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TT는 인용표지 없이 완전한 구어체인 FDD로 상즈의 음성만 재현하고 서술자의 흔적을 없애버린다. 이것은 아무리 원문이 서술문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해도 그 짧은 문장 안에 인물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吧’라는 어기조사가 두 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FID보다 인물의 음성만 부각시키는 FDD를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주인공의 내면심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본고의 데이터 전체를 분석한 결과, 220개 중 118개 예문 문단에서 FDD가 나타났으며, 이 중 평서문에서 FDD로 번역된 경우는 12개(10.2%)만 관찰되었다. 나머지 106개(89.8%) 예문에서 FDD로 번역된 문장들은 어기조사나 간투사(間投詞)가 포함되어 있거나 의문문, 감탄문의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원문의 FID를 FDD로 번역하는 것은 주로 의문문, 감탄문 등으로 구성되어 서술자의 음성보다 인물의 음성 지표가 더 많이 두드러지는 구문에서 발생한다. 특히 ‘呢’, ‘吧’, ‘呀(긍정, 찬성, 감탄 등을 나타낸 조사)’ 등 어기조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번역자는 이를 FDD로 재현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예문 6> FID 구문의 다음성 효과를 유지하려면 TT를 약간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문 6의 제안 번역>: 아무도 없다. 그의 가슴이 벌렁거렸다. 어차피 갈 곳도 없고, 한 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는 거다.

위와 같이, 원래 TT에 사용된 구어체 종결어미를 문어체 종결어미로 바꾸어 서술자의 음성을 들리도록 하였다. 반면에 현재 시제와 구어적으로 이르는 ‘거’ 등은 인물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자의 목소리가 인물의 목소리와 뒤섞여 다음성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외에 DD로 번역하거나 생략을 하여 원문의 다음성 효과가 손실돼 버린 경우도 있는데 FDD로 전환된 것보다 수량이 매우 적고 각각 1개만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예문으로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예문 7>

ST: 可是他和城里人一样的只会抱怨粮食贵, 而一点主意没有; 粮食贵, 贵吧, 谁有法儿教它贱呢? 这种态度使他只顾自己的生活, 把一切祸患灾难都放在脑后. (Chap.2, p. 12)

TT: 그러나 그는 다른 성 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양식 값이 비싸졌다고 원망할 뿐 뽀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양식 값이 비싸질 테면 비싸지라지! 누군들 값을 싸게 만들 수 있겠어?' #DD 라는 생각으로 그저 자신의 생활을 살필 뿐 우환이나 재앙에 대한 우려는 머리 뒤쪽으로 제쳐놓았다. (p. 24)

<예문 7>은 상즈가 열심히 일하고 인력거를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전쟁으로 인한 식량 가격의 상승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를 묘사한 것이다. ST 밑줄로 표시된 문장의 앞뒤 맥락에 나오는 3인칭 대명사 ‘他(그)’를 서술자의 음성을 보여주고 어기 조사 ‘吧’, ‘呢’, 그리고 물음표를 통

12) 위에서 언급한 118개의 예문 중 어기조사가 등장했을 때, 번역자가 이를 FDD로 재현하는 것은 72개, 61%에 해당한다.

해서 인물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这种态度(이러한 태도)’라는 지시소를 주인공 상즈의 생각이 끝났다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로 인하여 해당 구문이 FID로 판단된다.

반면, TT에서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상즈의 ‘생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독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DD로 번역되었다. DD는 등장인물의 음성을 표현하는 규범적인 방식으로 서술자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기능 이외에 특별한 문체적 효과를 문맥에 부여하지 않는다(조의연과 한미애, 2012, p. 190). 즉, 이 번역은 원문의 다음성 효과가 사라지고, 인물의 음성만 명시화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FID 구문의 문체 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또 다른 번역을 제안한다면, <예문 7> ST의 FID구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

<예문 7의 제안 번역>: 그러나 그는 다른 성 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양식 값이 비싸졌다고 원망할 뿐 뵤족한 수가 없었다. 양식 값이 비싸져도 어쩔 수 없다! 누군들 값을 싸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그저 자신의 생활을 살필 뿐 우환이나 재앙에 대한 우려는 머리 뒤 쪽으로 제쳐놓았다.

위 번역에서 밑줄로 친 구문은 각 문장 끝에 사용된 문어체 종결어미가 서술자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현재 시제로 종결된 ‘어쩔 수 없다’와 미래 시제 ‘있겠는가’는 인물의 시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느낌표, 물음표 등에도 인물의 감정이 들어 있다. 이처럼 한 발화에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서로 얽히도록 하면 원문과 같은 다음성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원문의 FID를 번역문에서 생략한 경우는 <예문 8>밖에 없기 때문에 번역자의 의도라기보다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FID 구문이 무의식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예문 8>은 아내와 사랑하는 여자가 다 죽고 어렵게 산 인력거를 또다시 팔아버린 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상즈의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심정을 묘사한 것이다.

<예문 8>

ST: 他要吃口好的, 喝口好的, 不必存着冬衣, 更根本不预备着再看见

冬天；今天快活一天吧，明天就死！管什么冬天不冬天呢！不幸，到了冬天，自己还活着，那就再说吧。(Chap.23, p. 212)

TT: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싶을 뿐이었다. 겨울옷을 보관할 필요도 없었다. 다시 겨울을 날 준비 따윈 하지 않는다. X (p. 356)

ST를 보면, 3인칭 대명사 ‘他(그)’와 재귀대명사 ‘自己(자기)’를 통해 서술자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고 어기조사 ‘吧’, ‘呢’, 그러도 연이어 나오는 느낌표 등이 인물의 음성을 보여준 지표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해당 구문은 서술자와 인물의 목소리가 혼합되어 나타난 FID 구문이다. 이와 같은 다음성 효과를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제대로 살리려면 <예문 8>의 FID 구문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예문 8의 제안 번역>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면 내일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겨울이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일 것인가! 불행하게도 겨울이 와버릴 때까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위 번역문에서는 각 문장 끝에 사용된 문어체 종결어미들이 서술자의 음성을 담고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 ‘자신’은 전달화법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서술자가 타인의 말이나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반면에 연이어 나타난 느낌표, 미래 시제 그리고 ‘되든 말든’의 축약형 어미 등은 인물의 음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서술자의 존재를 제시하면서도 인물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지표들이 구문 내부 곳곳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을 통해,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경계 없이 혼합되어 다음성 효과가 나타나는 한국어 FID 구문이 되는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 장편소설 『駱駝祥子』에 나타난 FID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어떤 형태로 번역되었는지, FID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특성인 다음성 효과는 적절히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문의 FID는 주로 FID, 혼합형, FDD, DD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된 경우도 관찰되었다. 원문의 다음성 효과 재현에 있어서, 그대로 한국어 FID로 번역되어 다음성을 유지한 경우는 전체 데이터의 반이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혼합형으로 변환시킴에 따라 다음성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FDD, DD로 바뀐 혹은 생략을 함으로써 다음성이 손실되어 버렸다.

번역문에서 FID 구문이 FID, FDD, DD 등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번역자가 해당 구문들이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서술자의 입으로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을 인지하고 번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법들은 모두 타자의 담화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번역문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원문의 FID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화법으로 번역된 것은 번역자가 원문 문체 재현에 있어서 FID 구문의 문체적 기능, 즉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혼합되므로 가져오는 다음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이 때문에, 번역자는 원문의 다음성 효과를 보존하기보다 불분명한 발화 주체를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인물의 생각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이다. 절반 이상의 문단에서 FDD가 등장하는 것도 번역자의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 양가형 구문의 존재도 원문의 다음성 효과 재현의 난이도를 증가시킨다. 명확한 인칭 대명사가 없고 앞뒤 맥락을 통해서야 정확한 화법 유형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문을 번역할 때, 정확한 번역문을 생산하기 위해 문맥 지표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특성 및 성격과 같은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문 내부에서 인물의 주관적 감정을 담고 있는 지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중국어 FID 구문의 다음성 효과 재현에 영향을 미친다.

13)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과 관련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원인 분석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2015)에서는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사례를 통하여 자유간접화법이 아닌 다른 화법으로 번역되었을 때 가져오는 문체적 상실에 대해 논의하였고, 자유간접화법으로의 번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FID의 문체적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p. 51).

문장에서 ‘呢’, ‘吧’, ‘呀’ 등 어기조사나 의문문, 감탄문 등의 문장 형태가 많이 나타날 때, 번역자는 이를 대부분 FDD로 바꾸어 번역하는 데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번역자는 서술자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문어체 종결어미, 과거 시제 등 지표를 활용하여 문장 내부에서 등장인물의 음성을 담고 있는 요소들과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원문의 다음성 효과를 재현해야 한다.

문학 텍스트는 심미적 또는 시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텍스트 유형과 구별된다. 때문에 문학 텍스트를 번역할 때, 원문 저자가 전달하려는 ‘내용’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 소설에서 다음성 효과가 있기에 독자에게 모호함과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FID는 틀림없이 문학 텍스트의 형식 범주에 속하며 번역자는 이 형식의 문학적 가치를 충분히 의식하고 동일한 문체 효과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번역해야 한다. 즉, 번역자는 FID를 FID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번역할 때 일어나는 문체적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 구문 내에서 직접적 요소와 간접적 요소를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원문의 다음성 효과를 재현해야 한다.

본고는 중국어 FID 구문의 한국어 번역 연구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한 장편소설 『駱駝祥子』에 나타난 중국어 FID의 한국어 번역 대응 양상만 고찰하였다. 다른 3인칭 소설 혹은 1인칭 소설의 번역문에서는 이와 다른 특성 및 대응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로솨. (1962). 駱駝祥子 [Rickshaw Boy]. 人民文学出版社.
 심규호, 유소영 옮김. (2008). 낙타상즈. 황소자리.

<2차 자료>

- 김종로. (1998). 자유간접화법의 다음성적 분석. 불어불문학연구, 36(2), 427-446.
- 노은주. (2021). 한국어 전달문의 혼합유형에 관한 몇 가지 관찰 — 자유간접화법과 내포직접화법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8(2), 75-98.
- 박선희. (2008). 『마담 보바리』의 자유간접문체의 번역비평 — ‘말’ 번역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145-181.
- 박선희. (2011a). 자유간접화법의 불한번역에서 다음성 재현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2(3), 55-82.
- 박선희. (2011b).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이론 비교 고찰. 통번역학연구, 13(2), 101-120.
- 박선희. (2015). 문학 번역에서 자유간접화법,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16(5), 39-60.
- 박선희. (2016). 자유간접문체 번역의 다음성 재현: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의 경우. 동서비교문학저널, 36, 31-50.
- 박선희. (2018). 한국어 자유간접문체에서 다음성을 만드는 내부 지표 연구: 『보바리 부인』과 『목로주점』 번역 사례. 통번역학연구, 22(3), 89-116.
- 서영환. (2018).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나타난 자유간접문체 번역 분석. 현대영미어문학, 36(1), 217-240.
- 정하연. (2015). 내면서사 번역의 가능성 —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에 나타나는 자유간접문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3), 247-71.
- 조의연, 한미애. (2012). 최대의 적합성으로 본 자유직접화법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1), 177-203.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 한미애. (2011). 서술의 다양성을 번역하기 — 『부랑일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1), 263-283.
- 한미애. (2013). 인지시학적 관점의 문체번역 연구 — 황순원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원형. (2011). 문장부호 ‘?’ ‘!’의 한일 대조 연구. 일본언어문화, 18, 313-

330.

- 單清叢. (2022). 漢語自由轉述體在韓國語譯本的對應類型研究 — 以余華小說《許三觀賣血記》韓譯本為例 [A study on the corresponding types of Chinese free indirect style in Korean - Taking the Korean translation of Yu Hua's novel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as an example]. *한중인문학연구*, 76, 299-326.
- 申丹. (1991). 也談中國小說敘述中轉述語的獨特性 — 兼與趙毅衡先生商榷 [The uniqueness of paraphrase in Chinese fiction narrative - A discussion with Mr. Zhao Yiheng]. *北京大學學報*, 1991(4), 76-79, 82.
- 申丹. (2019). 敘述學與小說文體學研究(第四版) [A study of narrative and fiction stylistics (4th)]. 北京大學出版社.
- 孫會軍, 於海闊. (2013). 從《駱駝祥子》英譯本對引語模式的處理看小說風格的再現 [The reproduction of fictional style from the treatment of quotation pattern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Camel Xiangzi*]. *外語研究*, 2013(4), 76-80.
- 楊斌. (2005). 英語小說自由間接引語的翻譯 [Translation of free indirect speech in English novels].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28(2), 71-75.
- 王林. (2014). 句子上的敘事：談自由間接話語的翻譯處理 [Narrative on sentences: Talking about the translation process of free indirect speech]. *外語教學與研究*, 46(2), 294-302.
- 潘冬. (2020). 漢語自由間接話語英譯的譯者行為研究 — 以葛浩文英譯《駱駝祥子》為例 [A study on translator behavior in English translation of Chinese free indirect speech: The case of Ge Haowen's English translation of *Camel Xiangzi*].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 3, 58-70.
- 黃立波. (2014). 《駱駝祥子》三個英譯本中敘述話語的翻譯 — 譯者風格的語料庫考察 [Translation of narrative language in three English translations of *Rickshaw Boy*: A corpus examination of translators' styles].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37(1), 72-99.
- Hagenaar, E. (1996). Free indirect speech in Chinese. In T. Janssen & W. van der (Eds.), *Reported speech: Forms and functions of the verb* (pp.

289-298). John Benjamins Publishing.

Fludernik, M. (1993). *The fictions of language and the languages of fiction: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speech and consciousness*. Routledge.

Leech, G., & Short, M. (2007). *Style in fiction: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Harlow: Longman.

Reproducing the polyphonic effects of free indirect discourse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Lao She's *Rickshaw Boy*

Di Cui (1115757297cd1991@gmail.c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ree indirect discourse (FID) is reproduced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Lao She's novel 駱駝祥子 (*Rickshaw Boy*)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polyphonic effect of FID is properly realized in the transl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Less than half of the instances of FID in the source text were preserved in the translation; the other instances were transformed into a hybrid form combining FID and free direct discourse, converted entirely to free direct discourse, direct discourse, or omitted altogether in the translation. These alterations resulted in a loss or weakening of the intended polyphonic effect. FID is a crucial consideration in the translation of novels. As a stylistic device, it merges the voices of the narrator and the characters, thereby producing a polyphonic effect within a sentence. The translation problems observed in this study may be attributed to the translator's limited appreciation of the polyphonic potential in FID passages.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ambivalent Chinese phrases and indicators reflecting the subjective emotions of key characters affected the ability to reproduce the polyphonic effect of the source text.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ranslators should be aware of the stylistic losses that may occur when translating FID into non-FID forms. They should also balance the voice markers of both the narrator and the characters to effectively recreate the polyphonic effects of the novel.

Keywords: Chinese-Korean translation; free indirect discourse; ambivalent phrase; polyphony; the effect of style

키워드: 중한 번역, 자유간접화법, 양가형, 다음성, 문체 효과

최적

한국외국어대학교 KFLT전공 박사과정 수료

1115757297cd1991@gmail.com

논문 투고일: 2024년 5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4년 5월 30일

2차 심사 완료: 2024년 6월 9일

게재 확정: 2024년 6월 15일